

2025~2026

경영정보공개

2026. 3. 31.

[목 차]

I. 2025년도 결산	1
1. 재무상태표	1
2. 운영성과표	2
II. 2025년도 주요 사업 실적	5
III. 2026년도 예산	9
IV.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12

I. 2025년도 결산 (2026년 2월 정기총회 승인)

1. 재무상태표

제62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61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한국보험계리사회

(단위 : 원)

과 목	제62기		제61기	
I. 유동자산		1,790,219,076		1,589,776,986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178,406,336		218,113,042	
2. 단기금융상품	1,600,000,000		1,350,000,000	
3. 매출채권	800,000		675,000	
4. 선급비용	94,786		12,312,314	
5. 미수수익	10,917,954		8,676,630	
II. 비유동자산		97,416,000		97,416,000
1. 기타 비유동자산	97,416,000		97,416,000	
(1) 임차보증금	97,416,000		97,416,000	
자 산 총 계		1,887,635,076		1,687,192,986
I. 유동부채		138,785,630		79,610,971
1. 미지급금	29,157,020		20,053,191	
2. 예수금	9,628,610		11,557,780	
3. 선수금	100,000,000		48,000,000	
II. 비유동부채		69,007,042		86,188,920
1. 퇴직급여충당부채	69,007,042		86,188,920	
부 채 총 계		207,792,672		165,799,891
I. 순자산		1,679,842,404		1,521,393,095
1. 제약 없는 순자산	1,679,842,404		1,521,393,095	
2. 제약 있는 순자산	-		-	
순 자 산 총 계		1,679,842,404		1,521,393,095
부 채 및 순 자 산 총 계		1,887,635,076		1,687,192,986

2. 운영성과표

제62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61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국보험계리사회

(단위 : 원)

과 목	제62기		제61기	
<i>제약 없는 순자산의 변동</i>				
I. 사업수익		1,111,756,296		1,120,294,861
1. 고유목적사업수익		979,550,000		991,003,861
(1) 회비	764,700,000		721,400,000	
1) 개인회비	371,700,000		343,900,000	
2) 법인회비	393,000,000		377,500,000	
(2) 국제지원금(구. 서울총회)	-		119,083,861	
(3) 심포지엄	214,850,000		150,520,000	
2. 수익사업수익		132,206,296		129,291,000
(1) 교육사업수입	132,206,296		129,291,000	
II. 사업외수익		46,930,925		60,141,129
1. 이자수입	45,442,525		55,110,306	
2. 기타수입	1,488,400		5,030,823	
III. 사업비용		1,000,217,512		1,171,250,749
1. 고유목적사업비용		843,298,678		1,020,311,983
(1) 사업수행비용	365,434,997		462,130,812	
1) 정기총회	538,340		3,678,350	
2) 심포지엄	144,574,486		167,808,806	
3) 임원워크숍	11,564,000		15,848,300	
4) 연합학술대회	5,035,500		5,764,600	
5) 주니어 워크숍	35,406,950		-	
6)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4,097,250		3,116,400	
7) 송년회	4,013,260		4,264,000	
8) 회의비(이사회·집행위)	7,097,620		7,944,220	
9) 회의비(위원회)	17,462,380		12,349,630	
10) 세미나	8,671,610		9,922,032	
11) 대외협력비	38,779,720		51,211,430	
12) 조사연구비	4,120,551		5,022,472	
13) 불문티어 운영비	1,500,000		1,500,000	
14) 해외출장비	54,020,571		40,332,395	
15) 대외기관 회비	28,552,759		22,766,777	
16) 계리사법	-		-	
17) 국제계리사회 서울총회	-		110,601,400	

과 목	제62기		제61기	
(2) 일반관리비용	477,863,681		558,181,171	
1) 급여	286,848,304		278,512,280	
2) 퇴직급여	23,219,591		23,263,920	
3) 복리후생비	35,610,730		38,108,950	
4) 임차료(사무실)	60,147,600		46,406,138	
5) 업무추진비	14,392,805		20,550,122	
6) 교통비	19,314,125		19,373,670	
7) 홈페이지관리비	7,436,453		8,548,930	
8) 사무국운영비	19,538,233		20,882,081	
9) 회원경조금	9,877,900		9,464,900	
10) 수선비	1,477,940		93,070,180	
2. 수익사업비용		156,918,834		150,938,766
(1) 교육사업비용	156,918,834		150,938,766	
1) 강사료	48,500,000		46,100,000	
2) 임차료(교육장)	87,600,000		67,620,000	
3) 기타운영비	20,818,834		37,218,766	
IV. 사업외비용		20,400		
1. 기타비용	20,400			
제약 없는 순자산의 증가(I+II-III)		158,449,309		9,185,241
제약 있는 순자산의 변동				
제약 있는 순자산의 증가		-		-
순자산의 증가		158,449,309		9,185,241
기초 순자산		1,521,393,095		1,512,207,854
기말 순자산		1,679,842,404		1,521,393,095

□ 비영리법인회계기준에 따른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는 위와 같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감사 결과) 걱정, 특이사항 없음
- ② (순자산 변동) 2025년도 말 순자산은 약 16.8억으로 2025년도 수지차(약 1.58억) 만큼 증가
- ③ (수지차) 2025년도 수지차는 약 1.58억
- ④ (부채 변동) 2025년도 말 부채는 약 2.1억으로 2024년도 말 대비 4,200만원 증가
 - 증가 항목: 외부 자문용역으로 인한 선수금(5,200만원, 추후 연구인건비로

지급 예정), 12월 법인카드 사용액·임차료 등 각종 미지급금(900만원)

- 감소 항목: 퇴직급여충당부채(1,700만원, 퇴직·중도정산 등), 예수금(200만원)

⑤ **(사업수익)** 2025년도 말 사업수익은 약 11.1억으로 2025년 예산대비 1.7% 증가, 2024년 실적 대비 0.8% 감소

- 주요 항목: 개인회비가 예산 대비 약 10% 추가 납부되었으며, 교육수입은 예산 대비 약 7.5% 감소(기타 항목은 평이)

⑥ **(사업외수익)** 이자수입은 약 4,700만원으로 예산 대비 9% 초과

⑦ **(사업비용)** 2025년도 말 사업비용은 약 10.0억으로 2025년 예산대비 11.9% 절감, 2024년 실적 대비 14.6% 절감

- 사업수행비용: 대부분의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제정 가능성이 희박한 계리사법 발의 비용을 절감한 것도 비용 절감에 주요 요인
- 일반관리비용: 일반관리비 또한 2025년 예산 대비 8.1% 절감, 2024년 실적 대비 14.4% 절감
- 교육사업비용: 예산 범위 내에서 평이하게 집행

⑧ **(사업외비용)** 특이사항 없음

Ⅱ. 2025년도 주요 사업실적

◆ 2025년은 계리·연금 제도 개선 지원, 회원 역량 강화, 국제 협력 확대 등 다방면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계리사회 및 계리사 직역의 사회적·국제적 위상을 한층 제고하였음

1. 국내 제도 개선 기여

- 국민연금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제도 발전 논의에 기여하였으며, 이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함
 - 해당 연구는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모형의 객관성·타당성 검증 및 고도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정추계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통해 국민연금 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 자율규제 기반 강화 및 책임준비금 산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검증기관의 품질관리 핵심지표를 조사·취합하여 공시하였으며,
 - 제도 및 실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검증 가이드라인 및 실무매뉴얼 등을 개정하여 적용 기준·절차를 명확화하고 검증 실무의 일관성 확보
- 계리 가정 관련 T/F 운영을 통해 손해율·사업비 등 보험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업계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제시함

2. 회원 역량 강화 및 기반 확충

-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가 윤리교육 과정을 보완 개설하여 전문성과 직업적 책무성을 함께 제고함
 -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총 10개 과정 증가(전년 대비)하였으며, 수강 회원은 822명으로 전년(745명) 대비 10.3% 상승

2025 교육 실적 현황

구분	과정명	참가
1분기	· 외부검증 가이드라인 실무	29명
	· IFRS17 기초	40명
	· 보험부채 보증/금리시스크의 평가 및 관리	28명
2분기	· 위험률 산출 프로세스	56명
	· 계리업자 등록 전 사전교육(2회)	6명
	· 선임계리사 지원조직 실무(생명보험)	25명
	· 재보험	43명
3분기	· IFRS17 계리보고서 이해 및 작성	44명
	· 마케팅 계리 실무	36명
	· IFRS17 기초	42명
	· IFRS17 회계의 실무적 이해 및 검증	31명
	· K-ICS 해설서 실무	60명
	· 예측 모델링	93명
	· IFRS17 결산 프로세스	2명
	· 계리업자 등록 전 사전교육(1회)	
4분기	· IFRS17 결산 현금흐름	85명
	· 선임계리사 지원조직 실무(손해보험)	9명
상시	· 윤리교육 등 18개 온라인 과정	142명
2025년도 전체 합계		822명

○ 심포지엄,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주니어 회원 워크숍 등 회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회원 간 소통 활성화 및 전문 네트워크 강화 지원

□ 세미나 및 학술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여 회원 전문성 제고와 학문·실무 간 연계 강화 등에 기여

2025 세미나 등 개최 현황

행사명	주제	참가
해외보험학자 초청 국제세미나(1월)	Statistical Modeling of Insurance Risk	45명
자연재해 리스크관리 세미나(4월)	Secondary Peril	83명
2025 IAK 심포지엄(6월)	4개 세션, 11개 주제 특강	1,505명
제1차 퇴직연금 세미나(7월)	퇴직연금 활성화	53명
보험연합학술대회(8월)	보험, 계리, 연금 등 논문발표	240명
리스크관리 세미나(9월)	아시아 보험사 RM 전략	46명
주니어회원 워크숍(9월)	4개 주제 특강	131명
재무·은퇴설계 세미나(10월)	재무·은퇴 설계	25명
제2차 퇴직연금 세미나(10월)	계리평가에 대한 회계감사 주요 이슈	65명
2025년도 전체 합계		2,193명

3. 국제 활동 및 협력 확대

- 국제계리사회(IAA) 위원회, 포럼, 섹션, T/F 등 국제 활동 참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한국 계리사의 목소리와 참여도를 제고함

IAA 참여 회원 확대 현황

기존 IAA 참여	IAA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uncil: 위원 1명 · Committee: 위원 1명, 옵저버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uncil: 위원 1명 ✓ Committee: 위원 3명, 옵저버 4명 ✓ Forum: 위원 2명, 옵저버 2명 ✓ Section: 위원 9명 ✓ Task Force: 위원 6명(AI T/F)

- 대만 등 해외에서 IFRS17 및 K-ICS 도입 경험 공유 발표를 진행하는 등 해외 계리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

2025 해외기관 초청 발표 현황

구분	발표 주제	초청 기관
해외 발표(2월)	한국의 IFRS 17 도입 사례 등	대만 계리사회 초청
해외 발표(10월)	한국의 K-ICS 도입 사례 등	대만 금융당국 초청
IAA 위원회 발표(11월)	한국 보험산업 규제 현황 등	IAA 보험규제위원회

- 전 세계 계리 관련 학자가 참석하는 국제계리학회(IME)를 유치하여 국제 학술·정책 교류의 통로를 확보하고, 향후 공동 연구 및 네트워크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4. 대외 위상 강화

- 보험계리 선진화를 위한 감독당국 주관 정책 간담회에 참여하여 제도 개선 방향 설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 회원 규모 증가 등 조직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대내·외적 신뢰

및 위상이 안정적으로 강화

개인/법인 회원 확대 현황

2024년 회원 현황(24.12)

- 전체회원: 4,096명(회비납부 2,083명)
- 정회원: 2,069명(회비납부, 1,227명)
- 준회원: 2,027명(회비납부, 856명)
- 법인회원: 65개 사



2025년 회원 현황(현재)

- ✓ 전체회원: 4,310명^{+214명}(회비납부 2,115명^{+32명})
- ✓ 정회원: 2,167명^{+98명}(회비납부, 1,280명^{+53명})
- ✓ 준회원: 2,143명^{+116명}(회비납부, 835명^{-21명})
- ✓ 법인회원: 67개 사^{+2개 사}

※ 각주: 전년 대비 증감

Ⅲ. 2026년도 예산 (2025년 12월 이사회 승인)

◆ 2024~2025 예산계획 및 실적을 기본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반영하여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균형예산으로 수립**

2026년도 예산안(요약)

(단위: 원)

구분	2026 예산(안)	2025 예산	2025 실적(추정)	예산대비	실적대비
수지차(A)-(B))	+48,400	+446,820	+153,120,662	-89.2%	-99.9%
세입계(A)	1,540,000,000	1,135,200,000	1,155,495,551	+35.7%	+33.3%
가. 영리사업	130,000,000	143,000,000	127,712,296	-9.1%	+0.2%
1. 교육수입	130,000,000	143,000,000	127,712,296	-9.1%	+0.2%
나. 목적사업	1,410,000,000	992,200,000	1,025,783,255	+42.1%	+37.5%
1. 연회비	785,000,000	729,000,000	764,200,000	+7.7%	+2.7%
개인회비	390,000,000	338,000,000	371,200,000	+15.4%	+5.1%
법인회비	395,000,000	391,000,000	393,000,000	+1.0%	+0.5%
2. 지원금(관광당국)	38,000,000	5,000,000	-	+660.0%	-
2026 IME(개최)	23,000,000	-	-	-	-
2027 AAC(홍보)	15,000,000	5,000,000	-	+200.0%	-
3. 행사	545,000,000	190,000,000	204,200,000	+186.9%	166.9%
심포지엄 참가/후원	197,000,000	190,000,000	204,200,000	+3.7%	-3.5%
IME 참가/분담/후원	346,000,000	-	-	-	-
임원워크숍 참가	2,000,000	4,000,000	1,600,000	-50.0%	+25.0%
4. 기타수입	42,000,000	41,700,000	46,733,255	+0.7%	-10.1%
이자수입	36,000,000	41,700,000	45,265,255	+0.7%	-7.2%
잡이익	-	-	1,466,600	-	-
세출계(B)	1,539,951,600	1,134,753,180	1,002,374,889	+35.7%	+53.6%
가. 영리사업	157,000,000	157,000,000	156,906,427	-	+0.1%
1. 교육사업 운영비	157,000,000	157,000,000	156,906,427	-	+0.1%
나. 목적사업	836,200,000	458,400,000	376,218,683	+82.4%	+122.3%
1. 일반사업비	826,200,000	458,400,000	376,218,683	+82.4%	+122.3%
다. 경상비	546,751,600	519,353,180	469,249,779	+5.3%	+16.5%
1. 인건비	396,504,000	375,105,580	344,321,523	+5.7%	+15.2%
2. 일반관리비	150,247,600	144,247,600	124,928,600	+4.2%	+20.3%

1. 세입계(약 15.40억 원 편성, 올해 예산 대비 35.7% 증가)

- **(영리사업)** 올해 교육수입 실적(1.28억)에 준하여 예산 편성(1.3억)
- **(목적사업)** 올해 실적(10.1억)에 대비 약 36% 증가한 14.1억으로 예산 편성(주된 증가 요인은 2026 IME 행사 개최로 인한 참가비·지원금 등 신설, +3.69억)
 - **(연회비)** 개인회비는 최근 5개년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올해 실적 대비 5% 증가 예산으로, 법인회비는 올해 실적에 준하여 편성
 - **(지원금)** 국제행사 홍보(2027 AAC), 개최(2026 IME)에 따른 관광당국 지원금 예산 편성(0.38억)
 - **(행사)** 심포지엄 참가·후원 수입은 올해 실적에 준하여 편성, 2026 IME 개최 수입은 3.69억 신규 편성
 - **(기타)** 이자 수입은 올해 실적에 준하여 편성(내년도 운용자산은 약 16.0억원 수준이며, 평균 기대수익률은 2.62%)

2. 세출계(약 15.39억 원 편성, 올해 예산 대비 35.7% 증가)

- **(영리사업)** 올해 교육사업 운영 비용(1.58억)에 준하여 예산 편성(1.57억)
- **(목적사업)** 올해 예산(4.58억)에 대비 약 69% 증가한 8.36억으로 예산 편성(주된 증가 요인은 2026 IME 행사 개최로 인한 비용 신설, 약 3.32억)
 - **(2026IME)** 전 세계 보험계리 학자 약 300명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장소 대관, 홈페이지 제작, 식사 등의 비용 집행 예정(3.32억)
 - **(심포지엄)** 올해 회원 피드백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최 장소를 변경(웰리힐리→비발디)하였으며, 이에 따른 비용 소폭 증가(+0.25억)
 - **(워크숍)** 올해 실시한 주니어 회원 워크숍 비용은 권역별 워크숍 비용으로 활용 예정
 - **(해외출장)** 2026 AAC(싱가포르)에 2027 AAC(서울) 홍보를 위한 실무자 3

명을 출장 인원에 포함하였음에도, IAA 총회가 근거리 국가(일본)에서 개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 예산은 15% 감액 편성(실무자 3명에 대한 비용은 관광당국 지원금으로 대부분 총당 예정)

- **(제도대응)** 올해 편성되었던 계리사법 추진 비용(0.6억)은 제도 개선 추진·대응 비용으로 감액 편성(0.4억)
- **(예비비)** 연중 신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비를 편성(0.4억)하였으며, 비용 집행의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 예정
- **(기타)** 이외 대부분의 예산은 올해 예산·실적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운용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항목을 통합·조정(일반97관리비-업무추진비 중 일부 예산을 대외협력비로 이관하여, 목적과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 정비)

□ **(경상비)** 올해 예산(5.19억)에 대비 약 5.3% 증가한 5.47억으로 예산 편성

- **(인건비)** 급여성 예산은 전년 대비 5.7% 증액(+0.18억) 편성하였으며, 직원 평균 임금 인상률 3.7% 반영과 함께 상임이사 상근인력으로 전환, 1년 이상 근속 직원 증가(2명)로 평가상여금 등 근속기준이 적용되는 항목의 집행 규모가 확대된 것이 주요 요인
 - 이외 4대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관련 인상률 상승분을 반영하여 책정
- **(일반관리비)** 올해 예산 대비 4.2%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원 증가에 따른 메일·문자 발송량 확대 등으로 전산 운영비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

가 2026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보험산업과 계리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회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

1. 업무추진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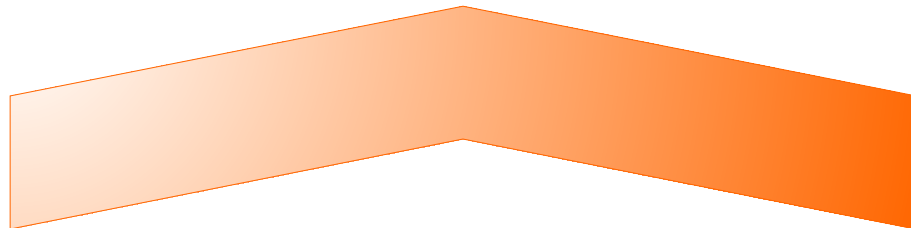
- 보험산업은 IFRS17·K-ICS 도입, 기후리스크 및 AI·데이터사이언스 확산으로 리스크 관리와 계리 전문성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 퇴직연금 및 은행·증권·공제 등 비보험 영역에서도 계리사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반면, 우리회의 자율규제 체계는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고 위원회 구조가 과다·중복되어 전략적 집중과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주요 활동 분야가 보험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국제무대에서의 발언 기회 및 영향력은 주요국 대비 부족한 실정
- 이러한 변화 환경 속에서 새 집행부 출범은 자율규제 고도화, 조직 운영 효율화, 전문 활동 영역 확장을 추진할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 특히 2026년 국제계리학회(IME) 및 2027년 아시아계리컨퍼런스(AAC) 서울 개최는 국제 위상 제고와 회원 권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기회임
- ➔ 이를 계기로 계리사 제도 개선, 자율규제 강화, 조직 혁신, 전문영역 확장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업무추진 방향

- 2026년도 업무 추진은 예산·인력·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기본 원칙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회원 권익 제고 등 핵심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며,
- AI·데이터 기반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형식적 운영을 지양하고, 회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 중심의 회무 체계로 전환하여 계리사(회)의 사회적·제도적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나 2026년 핵심 추진과제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는 계리사회



회원이 주체가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 중심 운영 체계

1	국제 위상 및 대외협력 확대
2	자율규제 확립 및 제도적 기반 강화
3	회원 권익 제고 및 참여 기반 확대
4	新 리스크 대응 및 권역 확장
5	조직 운영 혁신

1 국제 위상 강화 및 대외협력 확대

- **(국제행사)** 국제회의 등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국계리산업의 국제적 위상 강화
 - 2026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28차 국제계리학회(IME)*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계리산업의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발판 마련
 - * IME(International Congress on Insurance: **M**athematics and **E**conomics): 전 세계 계리 관련 학자 약 400명이 참석하는 국제계리학회, 계리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최신 이슈·트렌드 등을 논의
 - 2027년 서울 아시아 계리 컨퍼런스(AAC)*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 준비를 추진하고, 2026년 AAC 참석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참여를 독려
 - * AAC(Asian **A**ctuarial **C**onference): 아시아 각국의 계리사와 보험·연금 전문가 약 800명이 참석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계리 컨퍼런스, 업계 현안과 정책·실무 동향을 공유하고 지역별 계리·보험시장 발전 방향을 논의
- **(국제협력)** 국제계리사회(IAA) 및 주요 국가 계리사회와의 협력 채널을 확대하여 한국의 정책 발언권 및 참여도 제고
 - 올해 선정된 IAA 위원회·세션·TF 참여 회원*을 중심으로 참여·발표·의견 제시 등 활동을 적극 확대하고, 필요 시 추가 인선 및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국제 논의에서의 실질적 기여도를 제고
 - * 참여 회원 명부는 우리회 홈페이지>자료>국제자료>국제회의 공지사항 참고
 - 국제기구 참여 공유회를 정례화하여 활동성과와 국제동향을 확산하고, 회원의 국제무대 참여 확대를 지속 지원
- **(대외홍보)** 또한 국제 교류 확대에 맞추어 우리회의 비전과 주요 활동 등을 소개하는 국·영문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글로벌 인지도와 회원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자율규제 체계 확립

- **(자율규제)** 자율규제의 실효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
 - 국내·외 가정 및 모델링 관리 Best Practice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교육·세미나 등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회원의 실무 적용 역량 강화
 - 현행 실무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도·시장 환경에 맞게 보완하고 적용 기준·절차를 정교화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실무 운영 체계 유지
 - IFRS 17 도입 국가(캐나다, 독일 등)의 자율규제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 방안 연구
- **(계리업무)** 계리업무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통해 산업 내 신뢰 기반 확대 및 건전 발전 추진
 - 계리업무 중 고부가가치 업무 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반복·단순 검증 업무는 효율화하여 전문성 집중 환경 조성
 -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검증시간 산정 기준의 현실화를 추진함으로써 검증 품질과 투입 자원의 적정성 확보
 - 계리법인의 건전한 성장·경쟁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계리법인 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
 - 초 계리법인 회원사가 참여하는 계리법인협의회를 신설하여 관련 논의 및 지원 방안 마련

3 회원 권익 제고 및 참여 기반 확대

- **(회원참여)** 회비 납부 회원 전원이 회장 선거 및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함

- 더 나아가 회의·교육·투표 등 회무 전반에 온라인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접근성 향상과 처리 효율 제고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운영 체계 전환 추진
- **(회원소통)** 주니어·시니어 계리사 등 세대·경력 단계별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통·밀착형 커뮤니티 기반 강화
- 계리/RM·상품·연금 등 분야별, 사원·대리/과장·관리자 등 직급별 모임 추진
- **(회원연수)** 맞춤형 실무·윤리·심화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역량 강화 기회 제공
- 나아가 회원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심포지엄, 학술대회 등 개최

4 新 리스크 대응 및 권역 확장

- **(新 리스크)** 기후리스크, AI·데이터사이언스 등 新 이슈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보 공유와 실무 적용 논의를 위해 주제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업계 인식 제고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
- **(포럼)** 상품·연금 등 기존 분야에 대해서는 포럼 형태의 상시 논의 체계를 운영하여 실무자 간 토론, 사례 공유, 공통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

5 조직 운영 혁신

- **(조직개편)** 위원회 조직을 국제계리사회(IAA) 구조와 연계하여 현행 20개 위원회를 집행위원회 및 8개의 분과위원회로 통합·재구성함으로써 전략적 집중도를 높이고 운영 효율 강화

- 집행위원회는 회무 전반을 총괄하고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며, 분과위원회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및 실행을 책임지는 체계로 정립
- 중복되던 기능과 유사 분야를 정리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명확히 정렬하고, 국제 흐름에 맞춘 역할 분담을 통해 글로벌 협업 및 대응 기반 강화
- **(운영체계)** 상임이사 직을 현행 비상근에서 사무국 내 상근 전문인력으로 전환하여 실무 연구, 교육 기획, 대내외 협력 등 핵심 전문 업무를 총괄하도록 개편
- 장기적으로는 사무국장은 회원관리·행정·행사 운영을 담당하고, 상임이사는 정책·연구·전문업무를 수행하는 기능 이원화 체계를 구축
- **(규정정비)**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규정·내규 전반을 일괄 정비하여 회무 운영의 책임성과 제도적 정합성 제고
- 정관 개정(회장 연임제*의 합리적 재도입), 운영관리규정 개정(업무 중심 조직개편 반영), 임원 등 선임규정 개정(회장 직선제 도입) 등 주요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의 합리성과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연속성 확보

* 회장 연임제가 재도입 되더라도 차기회장(28대 회장)은 적용되지 않음